

수능에 지친 몸과 마음 문화예술로 위로하자



피아니스트 김규연

17일은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다. 시험을 마친 수능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진행된다.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은 현재 상연중인 '놈놈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수험생은 무료, 동반 1인은 1만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이 마무리되는 12월 31일까지는 수험표를 지참할 경우 본인 1만원, 동반 1인 1만 2000원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연극 '놈놈놈'은 한 여자를 둘러싸고 벌이는 세 남자의 치졸하고 이기적이며 소심한 수컷들의 사랑 싸움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10년 사귀 여자친구에게 결별 통보를 받고 힘들어하는 병호, 이혼 후 새로운 사랑에 설레는 승진, 10년째 고백 한번 못해보고 몰래 짝사랑하는 철용. 세 남자가 동시에 좋아하는 여자는 민지다. 셋은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싸우며 서로를 이해시키고 설득한다. 문의 062-351-1433.

금호아트홀은 18일(오후 7시30분) 열리는 김규연 피아노독주회에도 수험생을 무료 초청한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본인을



연극 '놈놈놈'

오늘부터 연말까지 수험표 지참 땀 각종 할인 혜택

동산아트홀 연극 '놈놈놈' 오늘 수험생 무료 입장

금호아트홀 김규연 피아노독주회 수험생 동반자도 무료

충장로 기분좋은극장 할인 혜택에 경품까지 제공

포함, 4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한 김씨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2010), 클리브랜드 국제피아노콩쿠르(2011) 등에서 입상했다. 클리브랜드 음악원을 거쳐 맨하탄 음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베르트 '악흥의 순간'과 '방랑자 환상곡', 라모 '클라브생 모음곡집' 등이다. 문의 062-351-1433.

'연애하기 좋은 날'을 공연중인 충장로 기분 좋은 극장은 할인 혜택과 경품 제공 행사를 마련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50% 할인 혜택을 제공, 1만 5000원에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또 미용실 컷트 이용권(20매), 음

식점 환술촌 이용권 등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카카오톡과 현장 예매시 적용해 준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지후'는 같은 병실에 전 여자친구인 '시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시연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고, 지후는 자신이 과거 어떤 남자친구였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연과 대화를 시작한다. 작품은 12월 31일까지 공연된다. 문의 062-222-0933.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진행하고 있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도 수험생들이 관람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다. 오는 28일(오후 6시 30분 소극장)에는 '아르츠 콘서트-런던'편으로 영국 현지에서 도슨트로 활약하

고 있는 윤상인의 해설로 빅토리아 시대 작품부터 현재 웨스트엔드 뮤지컬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과 '사랑의 인사', 스코틀랜드 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메들리(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이며 연주는 클래식안이 맡는다.

또 오는 12월 16일에는 솔리 앙상블의 연주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송' 등을 만날 수 있는 '아르츠 콘서트-크리스마스편'도 공연된다. 청소년 무료 관람, 일반 2만원. 문의 1600-6689.

영화관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메가박스는 다음달 6일까지 '수능 끝 할인 시작' 이벤트를 통해 수험표를 제시하는 수험생들에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는 '수험생 무한정잔' 어워드 이벤트를 통해 수험생에게 티켓을 무료 제공하며 17일 당일에는 수험생 본인이 영화 티켓을 구입할 때 수험표를 제시하면 동반 1인 무료 혜택을 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 문화의 흐름 조망

17~19일 문화전당 개관 1주년 심포지엄

아시아 문화의 흐름과 각 국가의 주요 현안을 조망하는 '20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개관 1주년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아시아의 인식과 지평'이라는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문화정보원 지하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진행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중국·일본·카자흐스탄·캐나다 등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 첫째날(17일)에는 '아시아의 인식과 접근'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금 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

보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18일에는 문화전당 개관 이후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아시아문화연구소의 다양한 연구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주제는 '아시아인의 삶과 의례 : 실천양상과 의미', '근대 이전 아시아의 풍경 : 여행기록물의 역사·문화적 함의', '유라시아를 되돌아 : 우리에게 유라시아란 무엇인가' 등이다.

행사 마지막날에는 영상과 동시대 예술에 반영된 아시아를 조망하는 영상을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심포지엄과 특별전시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601-404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창작 무용 'Golden Age' 공연

문화전당 18·19일 극장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8일, 19일 이틀간 극장1에서 창작 무용 공연 'Golden Age'를 선보인다.

지난해 창단한 아시안무용단의 작품으로 안예순 국립현대무용단장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한국의 임지에 안무가를 필두로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싱가포르에서 모인 총 7명의 아시아 대표 무용수들이 한 달간의 공동 작업을 거쳐, 아시아의 춤에 관해 새로운 해석

을 담아 제작했다.

이번 작품은 'Golden Age'를 주제로 우리가 지금껏 전통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전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의에서부터 출발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전통춤 대신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춤이 전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무 컨셉으로 설정, 각 국가의 전통춤을 시연하고 동작 안에 본인이 배워왔던 춤동작이 아닌 낯선 움직임들을 시도한다.

티켓가격 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구, 내일 전남대서 '2016 고봉학술대회'

광주시 광산구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가 주관하는 '2016 고봉학술대회'가 18일 오후 1시 전남대 이율호 기념관에서 열린다.

'시대의 삶과 철학, 방월당(氷月堂)에 묻다'를 주제로 여는 이번 학술대회는 주제발표 5건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제1부 첫 번째 주제는 '두 개의 집을 진 노새 : 은유 논쟁으로서 사단철정론'이다. 이항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기대승과 이항 사이의 사단철정논쟁을 인지 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서영이 조선대 교수가 논평한다. 이어 남지만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이 '철정의 윤리학 : 고봉 사철설의 철정리발의 의미'를 통해 사단과 철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장복

동 전남대 교수가 논평한다. 강희복 연세대 교수는 '고봉의 사상에 대한 미학적 해석'을 통해 기대승의 글과 시를 분석한다. 논평은 김재경 조선대 교수가 맡는다.

제2부에서는 '심학의 눈으로 본 고봉학'을 주제로 김세정 충남대 교수가 고봉의 철학을 양명학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또 김경호 전남대 교수는 '불온의 공간 : 존재의 사유, 너머'를 주제로 '논사록(論思錄)'을 재해석한다. 각각 유지웅 전북대 교수와 김승연 충남대 교수가 논평한다.

발표와 논평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김기현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문의 062-960-82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삼락서예원 '제39회 필우회전'

23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삼락서예원(원장 이규형) 필우회(회장 정재호)가 17~23일 메트로갤러리(금남로 4가역)에서 '제39회 필우회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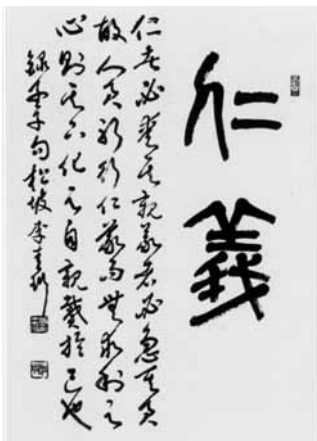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이 원장, 정 회장을 비롯해 유현 김일환, 경제 조옥희 등 화원 66명이 참여한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등 글씨

뿐 아니라 수묵화도 선보이며 볼거리를 더한 작품 140여점을 선보인다. 또 작품 옆에 한문을 번역한 해설문을 함께 전시해 작품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 원장은 '仁義(인의)' 작품을 전시하며 "군주는 몸소 인의를 행해야 아랫사람이 따른다"고 강조한다. 정 회장은 '香遠益清(향원익정·향기가 멀수록 더욱 맑다)'을 출

품해 군자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밖에 김일환 회장은 '格物致知(격물치지·사물의 이치를 연구해 올바른 지식을 세움)'를 통해 배움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당부한다.

지난 1977년 송파 이규형 원장의 제자들로 구성된 서예단체 '필우회'는 매년 한 차례씩 정기 회원전을 열고 있다. 회원은 100여명에 달하며 전남도전, 광주시전,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추천, 초대작가 30여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규형 작 '인의'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반)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구도청1

●충장파출소

●국민은행

●NC WAVE

광주세무서

더블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 본점 (062)223-5506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